

인도, 2011-12회계연도 GDP성장률 6.9%로  
3년 내 최저치 전망

□ 인도, 2011-12회계연도 GDP 성장률 6.9%로 3년 내 최저

- 2010-11회계연도 GDP 성장률 8.4%를 기록한 바 있는 인도는 2011-12회계연도(2011년 4월~2012년 3월)에는 GDP 성장률 6.9% 달성에 그칠 전망이다
  - 인도 중앙통계청(CSO, Central Statistics Office) 발표에 의하면, 전기, 가스, 상수도, 무역, 호텔, 교통, 통신, 금융, 보험, 부동산, 비즈니스 서비스 부문이 8% 성장, GDP 성장률을 견인했으나 농업, 산림, 어업(2.5%), 제조업(3.9%), 건설(4.8%) 부문은 성장 둔화세를 보임
  - 특히, 제조업은 이번 회계연도에 3.9% 성장에 그쳐 7.6%를 기록한 지난 회계연도의 절반을 약간 상회할 것으로 전망
- 한편, 현재의 11차 경제개발 계획기간(2007~12)의 성장률도 4년 평균성장률이 8.15%로 나타남에 따라, 8%대로 하향조정함.
  - 그러나, 인도정부의 기획위원회 위원장은 금번 미국 및 유럽의 경제위기 등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여전히 강한 경제 팬더멘탈을 보유하고 있음을 피력

## □ 향후 인도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요소

- 인도 루피화가 약세를 회복하는 중임. 인도 루피화의 대미달러 환율은 지난 12월 14일 53.9352루피를 기록했지만 올해 2월 10일에는 49.6445루피까지 절상됨. 이는 2월 10일 기준 한 달 사이 약 4.5% 하락함
- 2011년 내내 좋지 못했던 인도 Sensex 지수는 지난해 12월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올 기미를 보이며, 인도 Sensex 지수는 연초 이후로 전 세계 주요 국가 주가지수 중 4번째로 좋은 모습을 보임.
  - 작년 12월 20일 대비 2월 13일 기준으로 Sensex 지수는 15,135로 17.4%, Nifty 지수는 4,531로 19% 상승함. 이런 급격한 상승원인은 유럽중앙은행(European Central Bank)의 통화정책 완화로 인한 외국인기관투자자들의 유입으로 분석되며, 전문가들은 현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선 인도 재정 구조조정 및 정책 개혁이 필수라고 의견을 내고 있음
- 그밖에 금년 1월 인도 중앙은행(Reserve Bank of India)이 시중은행에 적용하는 지급준비율(Cash Reserve Ratio)을 0.5% 인하를 단행, 유동성(Liquidity)을 늘리는데 노력하고 있으며, 2011년 11월에 9.1%였던 인도의 인플레이션이 12월에는 7.5%까지 떨어졌고 인도 신용 평가사인 ICRA(Information and Credit Rating Agency Ltd.)에 따르면 최근 인도의 농산물과 식품가격 하락에 힘입어 2012년 3월까지 인플레이션이 7%대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함.

## □ 향후 전망 및 시사점

- 인도 재무부 장관인 Pranab Mukherjee에 의하면, 최근 기업심리의 호전, 루피화 환율 안정, 인플레이션 완화, 풍부한 monsoon으로 인한 풍년 및 서비스 부문 성장으로 경제 회복 전망됨.
  - 아울러, 지난 2년간 (2009-11 회계연도) 8% 성장률을 유지하다 최저치로 하락한 것이나, 반면 2011-12회계연도 1인당 국민소득은 60,000루피를 돌파할 전망이다
- 그러나, S&P 등 외부의 시각은 아직도 인도의 신용평가등급을 하향할 예정은 아니며, 인도 경제의 중장기적인 전망은 긍정적이나 상존하는 높은 인플레이션, 정부의 재정적자지속 및 정책 집행 능력저하 등 우려가 존재하므로 지속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망함.
  - EIU(Economist Intelligence Unit)도 2012년 2월 보고서에서 인도의 UPA(United Progressive Alliance)가 개혁 반대세력과 의회내 정치적 입지 약화로 경제개혁이 한동안 보류될 것으로 예상되고 인도 경제성장 속도가 저하할 것이라 예측함.

【뉴델리사무소 제공】